

# 양 계 경 영 상 의

## 부 기 회 계

趙 龍 熙

<영남대 축대 교수>

### 1. 서 론

#### 가. 양계경영과 부기회계

우리나라의 양계업은 지난 수년 동안 급속도로 성장했다. 그동안 사양 관리면에서 많은 연구와 발전을 보게 되어 어느덧 전업 혹은 기업화의 형태로 변모해 가고 있다. 양계업의 규모가 커 갈수록 그 경영이 복잡해지게 되므로 경영의 합리화를 위한 방안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는데 합리적 경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영업의 성과과 내용을 계수적으로 자세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즉, 경영의 성과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변동하는 양계기업의 재정상태를 정확하고 명백하게 기록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소규모 양계업일 때는 재정이 간단 했으므로 불완전한 기장에 의해서도 큰 불편이 없었다. 그러나 규모가 커 갈수록 재정도 복잡하게 되고 기업을 중심으로 한 이해 관계자도 많아지게 되므로 자연히 진보된 부기의 기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경영자는 항상 기업의 유지 발전과 경영의 개선을 위하여 과거의 자료를 정리하여 이를 분석·검토·비판함으로써 앞으로의 새로운 계획을 세우게 된다. 그

리고 기업내외부의 이해관계자들은 기업이 제시한 이러한 자료에 의해서 여러 각도의 판단 기준을 삼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경영자는 정확하고 명료하게 기록·계산·정리된 회계자료에 의하여 적정(適正)한 의사결정(意思決定)을 하게 되고, 기업과 이해관계(利害關係)를 맺고 있는 주주·채권자·거래처·종업원·금융기관 등은 이런 회계자료에 의하여 기업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측정하게 되며 관계되는 관청은 과세·통계 등의 측정기준을 삼게 된다.

비록 양계업의 비중이 적은 복합경영이거나 가계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영세경영이라 할지라도, 경영의 합리화로 경영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형태이든 성과와 내용을 비교·검토·비판·계획할 수 있는 계수적인 기록의 방법이 필요하다. 더욱이 계획적인 경영관리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규모 경영일 경우는, 보다 조직적이고 과학적인 회계자료에 의한 객관성 있고 합리적인 회계처리의 방법이 필요하다고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세무회계(稅務會計) 면에서도 소득의 구분계산이나 금후 축산업에 대한 과세문제는 필연적으로 양계부기와 회계를 수반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

### 나. 부기의 종류

사업에 이용되는 부기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분류된다. 부기는 경농주체에 따라서 상업부기·공업부기·영업부기·광업부기·은행부기·창고부기 등 영리경제 단위가 요구하는 영리부기(營利簿記)와, 예산의 실행 및 수입과 지출의 계산이 주가 되는 관청부기·학교부기·가계부기·협회부기 등 비영리사업(非營利事業)이 채택하는 비영리부기가 있다. 그리고 경영전체를 대상으로 손익계산을 하느냐, 경영내부의 부문별 손익계산을 하느냐에 따라, 전자인 재무부기(財務簿記)와 후자인 생산비 계산부기(生産費計算簿記)가 있다. 또한 부기를 이용하는 기업체에 따라서 개인기업부기(個人企業簿記)와 조합기업부기(組合企業簿記)와 회사기업부기(會社企業簿記)로도 구분할 수가 있다. 그리고 부기는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서 단식부기(單式簿記)와 복식부기(複式簿記)로 나누어 진다.

이상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부기를 이용하는 주체의 거래형태나 분량에 따라 조직체계나 처리 방법이 다른 여러 종류의 부기가 있는데 이들은 각각 그들대로의 특징과 성격이 있다고 보겠다.

그런데 본란은 영리부기로서의 양계부기에 관한 조직체계와 처리방법을 위하므로,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 구분이 되는 단식부기와 복식부기에 대해서 약간의 설명을 가하고자 한다.

### 다. 단식부기와 복식부기

단식부기는 회계에 대한 일기장(日記帳)이라고 할 정도로 일정한 원리와 법칙이 없이 다만 재산(財産)의 증가와 감소만을 기록할 뿐이므로 극히 상식적인 부기법이라고 하겠다. 말하자면 일정한 기간에 있어서 처음과 마지막의 재산의 증감변화를 보아서 얼마만큼의 재산이 증가 또는 감소했는가를 안다.

이때 증가는 이익이 있었던 것이 되고 감소는 그만큼 손실이 있었던 것이 된다. 따라서 어떤 손실이 얼마나 있었는지, 어떤 이익이 얼마큼 있었는지는 기록 계산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거래의 일면만을 파악하는 입장에서 기록되는 부기이기 때문에 이를 단식부기(Single entry book-keeping)라고 한다. 그러므로 단식부기는 불완전한 기록계산 방법이다. 그러나 이것은 기장(記帳)이 쉽고 단조로우므로 비교적 작은 규모의 소매업이나 영세농가나 가정부기 등과, 비영리부기로서 흔히 사용되고 있다.

한편 복식부기는 단식부기와는 달리 재산의 증감변화 뿐 아니라 자본(資本)의 증감변화도 빠짐 없이 기록계산 한다. 그리고 이들의 증가와 감소의 원인이 되는 비용(費用) 및 수익(收益)의 발생도 기장하게 된다. 그러므로 복식부기의 방법에 의하면 일정한 시점의 자산(資産)과 부채(負債)와 자본의 상태를 한 눈으로 파악할 수가 있을 뿐 아니라, 동시에 일정한 기간내의 비용과 수익의 발생상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복식부기는 경영활동에 대해서 그 원인과 결과를 양면적으로 명백히 밝히는 부기 기법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를 복식부기(Double entry book-keeping)라고 한다. 물론 복식부기는 일정한 법칙에 따라서 2면적인 기록계산을 해야 하므로 다소 복잡하고 기장 원리를 습득하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므로 채용하기 어려운점이 있다고 보겠다. 그러나 복식부기는 일단 원리만 습득하면 아무리 복잡한 대기업의 재정도 조직적으로 선명하게 정리해 낼 수 있다. 그리고 대차(貸借) 양면의 이면적 기록으로서 기록의 정확성 여부를 자동적으로 검증할 수 있으며 기업경영의 결과와 원인을 명백히 파악할 수 있다. 복식부기는 이러한 장점때문에 각종 기업에 널리 쓰여지고 있으며, 오늘날 부기라고 하면 으레 복식부기를 일컬을 정도로 객관화 되어 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까지 인류가 발명한 기장법 중에서 가장 조직적이고 과학적인 기법이므로 정규(正規)의 부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차츰 소규모 기업에서도 복식부기를 채용하고들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복식부기는 복잡한 경영활동을 하는 근대기업에 있어서, 기업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필요불가결한 기구이다. 그리고 현행 우리나라의 소득세법 제4조제3호에서 측산

**\* 부 회 계 \***

업으로부터 생기는 소득을 과세소득(課稅所得)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 세법 제14조에는 외형금액(外形金額) 4,000만원 이상의 사업에는 “복식부기 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오늘날 기업화 되어가고 있는 양계업은, 건전한 경영관리를 위해서나 앞으로의 세무회계(稅務會計) 면에서도 복식부기에 의한 회계처리가 절실히 요망되고 있으며, 소규모 양계업에서도 경영의 합리화를 위해서 복식부기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래서 본 란에서는 양계부기를 복식부기에 의해서 가장 처리하는 기초적인 문제부터, 지면이 허락하는대로 기업회계로서의 양계부기와 세무회계로서의 양계부기에 관해서 차례로 기술하고자 한다.

**2. 복식부기의 기초개념**

**가. 계정과 계정식 계산**

원시적인 소규모 경영에서는 재산관리를 위하여 단순히 수입과 지출만을 기록하는 방법으로도 사업의 수치계산을 할 수 있었다. 말하자면 처음에는 간이식 방법으로서 수입과 지출을 막연하게 질서없이 메모했는데, 차츰 경영이 복잡해지자 기록방법이 진보하여 각종 재화의 수입과 지출을 종류별로 상하 연속적인 기록을 하여 마치 사닥다리 모양으로 나타내게 되었다. 이런 방법을 「개계식 계산」(階梯式計算)이라고 한다.

예 :                    **개계식 계산**

1/2	현금수입	5,000
1/2	계란매출	+ 3,000
	잔액	<u>8,000</u>
1/6	사료구입	6,000
	잔액	<u>2,000</u>
1/9	잡비지출	- 500
	잔액	<u>1,500</u>
1/31	차입금상환	- 1,000
	잔액	<u><u>500</u></u>

그러나 이러한 계산형식으로도 큰 자본을 운영하는 기업의 재산관리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개계식계산에 의하면 +와 -의 계산이 번거롭고, 오산이 되기 쉽고, 거래의 내용을 한 눈으로 짐작할 수 없는 결점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결점을 없애고 명쾌한 계산이 될 수 있도록 연구된 방법이 계정(計定)을 사용한 “계정식 계산”(計定式計算)이라고 하는 것이다. 계정식계산을 하면 여러가지의 장점들이 있다. 예를 들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산단위가 종류별로 명료하게 구분되어 나타나며, 현금의 수입과 지출 상황을 한눈으로 파악할 수 있고, 좌우 어느 편이나 +의 계산만을 하므로 계산방법도 편편리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장점들을 이용하여 복식부기는 계정식 계산을 그 기구의 기반으로 삼고 있는데, 기업의 모든 경영활동을 계정(account)을 사용함이 복식부기의 근본적인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계 정 식 계 산**

(수입)	현	금(現金)	(지출)
1/1 수 입	5,000	1/6 사료차입	6,000
1/2 계란매출	3,000	1/9 잡비지출	500
		1/31 차입금상환	1,000
		잔액	<u>500</u>
	<u>8,000</u>		<u>8,000</u>

여기서 현금·계란·사료·잡비 차입금 등 종류별로 증감계산을 하기 위한 각각의 단위를 계정(a/c)이라고 한다. 즉 부기에서 계정이라고 하는 것은 화폐계산을 할 경우의 하나 하나의 계산단위를 의미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양계경영에 있어서 계사의 증감계산을 행하는 단위를 계사계정(鷄舍 a/c), 산란계의 증감계산을 위한 단위를 산란계 계정(産卵鷄舍 a/c)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 밖에 현금계정·예금계정·차입금계정·계란계정·폐계계정·육계계정·지급이자계정 등 얼마든지 많이 있다. 그리고 이때 종류별로 설정된 각계정의 명칭을 계정과목(計定科目)이라고 하고 장부상에 기록 계산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계정좌좌(計定計座) 혹은 계정좌(計定座)라고 한다.

나. 차변(借邊), 대변(貸邊)이란?

복식부기의 특별한 계산형식이 계정식계산이고, 계정식계산을 할 때는 모든 거래를 좌측과 우측으로 구분하여 기록 계산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때 좌측을 차변, 우측을 대변이라고 한다. 약식의 T자형 계정형식을 그려서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차변)	× × 계 정	(대변)

흔히 초보자들이 차변·대변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의 뜻을 이해하는데 도취되어 고민하다가, 복식부기라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것이라고 단정하고 부기공부를 포기해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좀 우수한 것 같지만 일리가 있는 일이다. 왜냐하면 복식부기라고 하면 차변·대변을 더나서는 생각할 수가 없을 정도로 허다하게 사용되고 있는데도, 기록계산은 차(借)·대(貸)라고하는 원리의 말뜻과는 하등 관계 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차변·대변이라고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차변·대변이라고 하는 부기상의 용어를 분명히 알아 둘 것이 필요하다.

부기의 발달과정을 살펴보면, 차변·대변이라고 하는 말이 처음에는 문자 그대로의 뜻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대차관계(貸借關係)와는 전혀 무관계하게 사용되고 있고, 단지 부기상의 부호에 지나지 않게 된 것이다. 즉 계정의 왼편 이름을 차변이라고 하고 바른편의 이름을 대변이라고 한데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므로 하필 차변·대변이라고 하지 않고 좌변(左邊)·우변(右邊)이라 해도 되겠고, x편 y편이라고 해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리고 계정의 왼쪽은 항상 차변이고 바른 쪽은 항상 대변이라고 일컬어지므로 일일이 계정의 좌우에 차·대변이라고 기입하지 않아도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때문에 이런 애매한 차변·대변이란 용어를 써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없을 수 없다. 그것은 오직 옛날부터의 습관이며 관습상의 용어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다.

요는 부기에서 차변·대변이라고 하는것은 글자 자체의 뜻과 아무런 관계없이 좌우의 위치를 표시하는 부호로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므로 증가와 감소라는 말과 절대로 혼동해서는 안된다.



건국 사료

건국배합사료공업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양동 544 ~ 7  
TEL 직통 55-2294 교환 55-0061 ~ 9